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에 따른 모유수유 실천 및 모성정체감 비교 연구

신계영* · 김오진** · 박주현*** · 이정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천연식으로서 아기 뿐 아니라 모체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다. 먼저 모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소화흡수가 잘되고, 다량의 면역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아기에게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호흡기계 감염이나 설사와 같은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하고 알레르기를 예방한다(Cunningham, 1979). 또한 산모에게는 자궁수축을 돕고, 산후 회복을 촉진시키고,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며 모유수유동안 산모는 많은 열량을 소모하므로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Worthington-Roberts & William 1989).

이러한 모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소득을 향상시키고, 의학 기술의 발달 및 식품 가공업의 발달을 가져오는 반면, 우수한 모유 대신 인공영양의 형태인 우유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로부터 모유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잘못된 정보 또는 지식과 함께, 쉽고 편안한 것만

을 추구하려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사고까지 변화시켜, 의식 구조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모유수유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1985년 59.1%에서 1997년 14.1%로 급속히 감소한 반면, 혼합 수유율은 1985년 25.3%에서 1997년 52.5%로, 조제 분유만 먹이는 비율은 1985년 15.4%에서 1997년 33.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조남훈, 김승권, 장영식, 1997).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유수유의 장점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1995년부터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WHO와 UNICEF는 1992년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병원에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모자동실은 산후 엄마와 아기가 같은 방에 머무르면서 조기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시도할 수 있으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보다 빨리 습득할 수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RN-BSN과정, 의정부 성모병원 간호부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RN-BSN과정, 삼성서울병원 간호부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RN-BSN과정

투고일 7. 6 심사외뢰일 7. 15 심사완료일 8. 10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모유수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전략이다.

이와 같이 모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공유로 대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모유수유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사를 벌이는 것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자동실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자동실이 출산직후 아기와 같이 있음으로서 효과적인 모유수유 실천을 유도할 뿐 아니라 모성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모자동실의 산모와 모자별실의 산모간의 모유수유정도를 살피고, 모자동실제가 모유수유 실천 및 모성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추후 모자동실제 도입을 시도하려는 병원과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 2)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산모간의 모유수유 지속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산모간의 모성 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 1) 모자동실: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가 12시간 이상 같은 병실에 머무르는 형태로서, 산모는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주의사항과 모유수유 방법을 교육받으며, 신생아 돌보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병실운영체제를 말한다.
- 2) 모자별실: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는 분리되어 각기 다른 병실에 머무르는 형태로서, 산모는 한정된 시간에 신생아를 면회하거나 모유수유를 원할 때 수유실에서 수유하며 신생아 돌보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병실운영체제를 말한다.
- 3) 모성 정체감: 어머니와 아기간의 관계체계에서 어머니로서의 인식과 정서를 말하며(Walker & Montgomery, 1994), 본 연구에서는 Osgood, Suji와 Tannenbaum(1957)이 어의구별척도로 개

발한 후, Walker(고효정, 1996에 인용됨) 및 고효정(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문헌 고찰

1. 모유수유

최근 들어, 산업화 및 경제적 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모유수유가 어려워지고 가정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분유를 사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모유수유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은 산전관리에 대한 교육부족, 산후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 부족, 분만 후 모아 분리, 병원의 정해진 시간에 수유를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배우자나 가족의 격려부족, 사회 변동에 따른 여성의식 구조의 변화(조미영, 1992)와 모유가 아기의 성장에 부적절하다는 그릇된 생각, 가족들의 지지 부족, 엄마의 직장생활, 병원환경 등(Guldan, Zhang, Zeng, Hong & Yang, 1995)이 언급되고 있다.

Marchand와 Morrow(1994)는 어머니가 모유수유에 대해 느끼는 이점이 모유수유와 관련된 불편감이나 당황스러움 등의 직접적인 문제를 능가해야만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실천한다고 하였다. 것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불안,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근심, 걱정, 불안정한 정서상태는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천하지 못하거나 모유수유를 성급히 그만두게 하는 일반적인 이유이며, 유즙분비 작용을 저해하는 수유실패의 원인이 된다(Bottorff & Morse, 1990).

Aberman과 Kirchoff(1985)는 산전에 모유수유 교실에 참석하여 책과 팜플렛을 통한 정보습득이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조미영(1992)은 산전과 산후에 의료인의 정보제공과 지지가 모유수유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모자 동실

모자동실은 모유수유를 증진시키는 한편 엄마와의 조기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비해 모자별실은 수유 뿐 아니라 모아간의 정서적 유대를 저해하는 원인의 하나로 본다(Oslislo & Kaminski,

2000). 최근 들어 임신부들은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에 대한 병원의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병원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병원을 결정한다 (Bergmann, Kamtsiuris, Bergmann, Huber & Dudenhausen, 2000).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유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분만 즉시 모자동실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엄마와 아기간의 초기 연대감이 강화된다고 하여 모자동실이 모유수유 증진에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Kasemsarn, Ngarmpiyasakul, Phongpanich & Pulkasiri, 199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기가 출생한 후 1-3일 동안의 수유 형태가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여 모자동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모유수유 증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만 직후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산모의 첫 모유수유 경험이 긍정적이고 첫 수유시 전문인의 지지와 도움이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모자동실제를 도입하는 것이 모유수유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또한 소아 전문의들은 모유수유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가능한 한 초기 접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산육기동안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수유에 대한 빈도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유를 제공하는 것이 모유수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여 (Loras-Duclaux, 2000) 모자동실이 모유수유를 위한 접근 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3. 모성정체감

모성정체감은 어머니와 아기간에 개인적이면서도 특수한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아 돌보기 대한 자신감과 모아 상호작용의 결과로 모아애착이 형성된다(Reeder, Martin & Koniak, 1992). 특히 모유수유 활동은 모성 역할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모아간에 가능한 초기 접촉을 갖는 것은 모성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Preski & Walker, 1997). 또한 어머니와 자녀간에 애착은 생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데, 모유수유는 영아의 정서발달, 사회발달 및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피부접촉을 통하여 엄마 역할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증진된다(Reid, 2000).

산육초기의 산모에게 모아접촉과 영아 돌보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아기를 돌보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아기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이 적어지므로 모성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감과 아기에 대한 정체감을 측정된 결과 모성정체감은 엄마의 역할획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엄마역할로의 이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Fowled, 1996).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자동실 또는 모자별실 간호가 산모의 모유수유 지속과 모성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5개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로, 1) 정상적인 결혼 관계이며, 2) 제태기간 38주-42주, 체중이 2500gram이상인 신생아를 출산한 자, 3) 임신 및 분만의 과정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산모에게 확대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1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장과 해당 병실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 (2) 자료수집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산모를 선정하여 분만 후 2일에 입원실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 (3) 분만 후 4주에 대상자에게 1차 전화 설문을 실시하여 모유수유 실천 여부와 수유관련 사항을 조사하였고, 1차 전화설문에서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를 재 선정하여 분만 후 8주에 2차 전화 설문을 실시하여 모유수유 실천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수유관련 특성, 모성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 (1)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가족형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9문항의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 (2) 산과적 특성 및 수유형태에 대한 기초자료 측정은 황문숙(1997)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유계획, 수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수유에 관한 정보취득 및 교육이수 여부, 희망병실형태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 (3) 모성정체감 측정도구는 Walker(고효정, 1996에 인용됨)가 개발한 도구를 국내에서 고효정(1996)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Osgood 등(1957)이 개발한 어의구별척도로서 Walker(고효정, 1996에 인용됨)는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Myself as Mother)'와 '아기와의 동일시감(My baby)'에 대한 평가적인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고효정(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4. 자료의 분석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122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모자동실군 55명과 모자별실군 40명을 포함한 95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항목별로 두 집단간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 또는 t-test를 이용하였다.
- 2) 두 집단간의 모유수유 지속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test를 이용하였다.
- 3)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의 모성 정체감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정체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세 이상이 전체의 61.1%를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53.6%를 차지하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분류	모자동실군 대상자수(%)	모자별실군 대상자수(%)	χ^2	p
연령	21~24	4(7.3)	2(5.0)	0.63	.52
	25~29	15(27.3)	16(40.0)		
	over 30	36(65.5)	22(55.0)		
학력	중졸	1(1.8)	1(2.5)	0.07	.96
	고졸	12(21.8)	30(75.0)		
	대졸이상	42(76.4)	9(22.5)		
종교	유	42(76.4)	34(85.0)	0.08	.77
	무	13(23.6)	6(15.0)		
가족형태	핵가족	51(92.7)	32(80.0)	3.39	.11
	확대가족	4(7.3)	8(20.0)		
월수입	200만원 미만	17(30.9)	17(42.5)	2.20	.33
	200만원-299만원	26(47.5)	13(32.5)		
	300만원이상	12(21.8)	10(25.0)		
직장	유	19(34.5)	19(47.5)	1.61	.20
	무	36(65.5)	21(52.5)		
아기성별	남아	29(52.7)	19(47.5)	0.25	.61
	여아	26(47.3)	21(52.5)		
임신회망여부	예	47(85.5)	33(82.5)	0.15	.69
	아니오	8(14.5)	7(17.5)		
총 대상자 수		55	40		

였다. 대상자의 80%가 종교가 있으며, 가족 형태는 87.4%가 핵가족으로서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보였다. 수입은 월 200만원 이상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유무는 대상자의 40%가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성별은 남아가 50.5%로 약간 높았으며, 대상자의 84.2%가 원하던 임신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모자별실군과 모자동실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2) 대상자의 수유관련 특성

대상자의 퇴원 후 수유계획은 69.5%가 모유를 수유할 계획이었고, 모유수유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자신이 93.7%로 높아, 대부분이 산모의 의지로 수유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93.7%가 임신기간동안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는 접할 기회가 있었으나 85.3%가 교육은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수유관련특성은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입원 중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경우는 64.2%를 차지하였으며,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1),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의료인은 주로 간호사(75.8%)이었으며, 모자동

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 추후 분만시 희망하는 병실 형태는 모자동실이 64.2%이었으며,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 모자동실을 희망하는 이유는 모아 애착 형성 및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가장 높았으며(61.5%), 다음으로 영아 돌보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17.3%), 모아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17.3%)이라고 응답하였다(표 2).

2.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산모간의 모유수유 지속 비교

분만 4주 후의 수유형태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모유수유의 경우 모자동실군 38.2%, 모자별실군 45%로 나타나, 초기에는 모자별실군의 모유수유율이 높았다. 그러나 분만 8주 후에 모유수유 지속여부를 비교한 결과, 모자동실군의 경우 100% 지속하고 있는 반면, 모자별실군은 55.6%만이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4).

분만 4주 후에 모유수유를 지속하지 않는 모자별실군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는 모유가 부족해서(41.1%), 다음으로 산모의 건강, 유두이상 또는 직장 복

<표 2> 대상자의 수유관련 특성

항목	분류	모자동실군 대상자수(%)	모자별실군 대상자수(%)	χ^2	p
초유	수유함	43(78.2)	25(62.5)	2.79	.09
	수유하지 않음	12(21.8)	15(37.5)		
퇴원후 수유계획	모유수유	40(72.7)	26(65.0)	1.70	.42
	인공유수유	2(3.6)	4(10.0)		
	혼합수유	13(23.6)	10(25.0)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친 사람	자신	52(94.5)	37(92.5)	3.24	.35
	가족	0(0.0)	2(5.0)		
	의료진	3(5.5)	1(2.5)		
임신동안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습득여부	예	51(92.7)	38(95.0)	0.41	.51
	아니오	4(7.3)	2(5.0)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여부	예	7(12.7)	7(17.5)	0.41	.51
	아니오	48(87.3)	33(82.5)		
입원동안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여부	예	42(76.4)	19(47.5)	10.0	.006**
	아니오	13(23.6)	21(52.5)		
	교육제공자	간호사	50(90.9)		
	다른 산모	1(1.8)	6(15.0)	14.71	.000**
	기타	4(7.3)	12(30.0)		
추후 분만시 희망 병실형태	24시간 모자동실	43(78.2)	18(45.0)	18.81	.000**
	낮시간 모자동실	10(18.2)	7(17.5)		
	모자별실	2(3.6)	15(37.5)		

(** p< .01)

〈표 3〉 분만 4주 후의 수유형태

수유형태	대상자수(%)	모자동실군 대상자수(%)	모자별실군 대상자수(%)	χ^2	p
모유 수유	39(41.1)	21(38.2)	18(45.0)	4.47	.34
인공유 수유	30(31.6)	15(27.3)	15(37.5)		
혼합형	26(27.3)	19(34.5)	7(17.5)		

〈표 4〉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의 모유수유 지속 비교

군	분만 4주후	분만 8주후	지속율(%)	χ^2	p
모자동실	21	21	100	11.74	.002**
모자별실	18	10	55.6		

(** p< .01)

귀와 같은 모성관련요인과 신생아황달 및 설사와 같은 신생아 관련 요인으로 인해 수유형태를 바꾸었다고 응답했다.

며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3.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산모간의 모성 정체감 비교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의 모성 정체감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은 모자동실군이 평균 53.6, 모자별실군이 평균 50.0으로 모자동실군이 높았으며,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또한 아기와 동일시는 모자동실군이 평균 34.6, 모자별실군이 평균 31.9로 모자동실군이 높았으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감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모성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신생아 성별에 따라(p< .05), 원하던 임신 여부에 따라(p< .05), 초유수유여부에 따라(p< .01), 아기에 대한 느낌에 따라(p< .01) 모성정체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기성별이 남아인 집단에서, 원했던 임신인 경우 모성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5〉 모성정체감 비교

항 목	모자동실군 평균(SD)	모자별실군 평균(SD)	t	p
어머니로서의 자신	53.6(7.5)	50.0(6.5)	2.4	.017*
아기와 동일시	34.6(4.9)	31.9(6.5)	2.3	.022*
모성정체감 총점	88.2(10.6)	81.9(7.8)	3.1	.022*

(* p< .0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감 비교

항 목	분 류	대상자수(%)	모성정체감 평균	t	p
아기성별	남아	48(50.5)	86.4	3.54	.018*
	여아	47(49.5)	84.8		
임신회망여부	예	80(84.2)	85.8	3.45	.019*
	아니오	15(15.8)	84.6		
초유	수유함	68(71.6)	86.5	4.00	.009*
	수유하지 않음	27(28.4)	83.5		
아기에 대한 느낌	행복하다	88(92.6)	86.3	5.76	.001**
	무덤덤하다	7(7.4)	77.1		

(* p< .05, ** p< .01)

V. 논 의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해 모유수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출산후 병원에서부터 제공되는 수유경험과 의료진의 모유수유지도 및 장려, 가족들의 지지 등이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의 분만 후 8주의 수유형태를 비교한 결과 모자동실군에서 모유수유 지속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Froozani, Permezhadeh, Motlagh & Golestan(1999)의 연구에서 모자동실군에게는 일대일 모유수유 교육을 시행하고 모자별실군에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후 모유수유의 지속정도를 비교한 결과, 초기에는 실험군의 중단율이 높았으나 4개월 후에는 실험군 5%, 대조군 18%의 중단을 보여, 대조군의 중단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이 모유를 지속적으로 수유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은 모자동실 또는 모자별실과 같은 병실형태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동실의 경우, 산후에 아기와 산모가 같은 병실에 있으므로 모유수유의 방법이나 중요성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모자별실에 비해 모유수유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입원 중 의료인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지지는 산후 산모가 모유수유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는 모유수유를 지지하고 장려하는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반면에, 분만 후 4주에 모유수유 지속 정도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자동실군에서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황문숙(1997)의 연구와는 대조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황문숙(1997)의 연구에서 보면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의 초유수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초유수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초유수유가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인다.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분만 첫 1주 후에는 모유가 빨리 분비된 경우, 사회적 지지, 모유수유에 대한 계획 시기 등이 유의하고, 8주 후에는 사회적 지지, 모유가 빨리 분비된 경우 등이 유

의하였으며 특히 모자동실의 산모는 모자별실의 산모에 비해 초유가 유의하게 일찍 분비되었다(Perez-Escadrille, Sefura-Millan, Politt & Dewey, 1993). 이런 점에서 초유 수유가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이유는 모유량 부족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20%가 엄마의 직장 복귀로 수유형태를 변경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유량 부족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된 문제점이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모유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자신의 모유로는 아기의 영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산전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되어야 하겠다. 또한 엄마의 직장 복귀가 모유수유 지속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직장내의 수유실 마련이나 모유를 미리 짜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모유수유를 지속하려는 엄마의 의지를 격려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넓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은주(1999)는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수유 형태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을 받은 군에서의 모유 수유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p = .000$). 이는 산전 모유수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산전에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가 14.7%로, 대다수가 산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산전에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모자동실군은 모자별실군에 비해 모성 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이는 모자동실이 아기와의 초기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 산모는 아기에 대한 애착과 모성 정체감이 형성되고, 모유수유와 아기 돌보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아기는 잦은 접촉으로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갖게되어 정서적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또한 대상자로부터 다음 출산 때 희망하는 병실형태를 설문한 결과, 82.1%가 모자동실을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아 애착과 영아 돌보기, 모유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산모들은 퇴원 후 영아를 돌보는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 후 모자동실에 있으면서 아기를 돌보는 방법이나

수유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되므로 모자동실제가 갖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모자동실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모자동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지속적인 행정지원, 잘 훈련된 인력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또한 산전 교육을 통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아기와의 조기접촉으로 모유수유분비를 자극할 뿐 아니라 모성 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자동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겠다.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모자동실제가 아닌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고려한 개별화된 모자동실제의 운영도 바람직하다(Dharamraj, Sia, Kierney, Parekh, Harper & Weissman, 198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만 후 산모는 신생아와의 접촉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모성 정체감 뿐 아니라 아기의 정서적 안정과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모유수유는 모성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모자동실은 모유수유를 증진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모자동실은 산후에 모아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유와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 퇴원 후에 아기를 돌보는데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모자동실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유수유가 가능하도록 산모를 격려하고 가족의 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중재를 계획하여야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인 모자동실이 산모의 모유수유 지속과 모성 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5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 임의 표출하여 모자동실군 55명, 모자별실군 40명의 총 9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유수유의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만 후 4주와 8주에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수집된 자

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수유 관련 특성은 71.6%가 초유를 수유하였고, 퇴원 후 69.5%가 모유수유를 계획하였고, 산전관리동안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14.7%에 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입원기간 중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4.2%이었고 모자동실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p<.01$), 75.8%가 간호사를 통해 교육을 받았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추후 분만시 희망하는 병실형태는 64.2%가 24시간 모자동실을 원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다음으로 모유수유 지속정도를 비교한 결과 분만 후 4주에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8주에는 모자동실군이 지속적으로 모유를 수유하고 있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또한 모성 정체감은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2$).

결론적으로 산모들은 모자동실을 선호하였는데 모자동실은 산후 아기와의 조기 접촉이 가능하고, 산모는 아기와 같이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기 돌보는 방법을 습득하여 자신감을 높이며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로서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의지를 길러줄 뿐 아니라 초유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모성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이끌어 모유수유 증진 전략으로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많은 병원에서 모자동실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간호사는 산모로 하여금 아기 돌보기와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를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일부 병원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산모에게 적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산모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반복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모자동실제는 긍정적이므로 많은 병원에서 모자동실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호사는 보다 적극적인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3. 이제까지 산전에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이 미비하므로 산전교육내용에 모유의 우수성, 수유시 장점 등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된 홍보용 매체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고효정 (1996).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이은주 (1999). 모유수유 교육 유무에 따른 수유실태 비교. *계명간호과학*, 3(1), 111-125.
- 조남훈, 김승원, 장영식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 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 황문숙 (1997). 모자동실이 모성역할과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erman, S. & Kirchnoff, T. (1985). Infant feeding practice mother's decision making. *J Obstet Gynecol Neonat Nurs*, 14(5), 394-398.
- Bergmann, R. L., Kamtsiuris, P., Bergmann, K. E., Huber, M. & Dudenhausen, J. W. (2000). Competent parenting: expectations of young parents of counseling on pregnancy and labor. *Z Geburtshilfe Neonatol*, 204(2), 60-67.
- Bottorff, J. L. & Morse, J. M. (1990). Mothers' perceptions of breast milk. *J Obstet Gynecol Neonat Nurs*, 19(6), 518-27.
- Cunningham, A. S. (1979). Morbidity in breast-fed & artificial infants(II). *J Pediatr*, 95(5), 685-689.
- Dharamraj, C., Sia, C. G., Kierney, C. M., Parekh, A., Harper, R. G. & Weissman, B. (1981). Observation on maternal preference for rooming in facilities. *Pediatrics*, 67(5), 638-640.
- Fowles, E. R. (1996). Relationships among prenatal maternal attachment, presence of postnatal depressive symptoms,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J Soc Pediatr Nurs*, 1(2), 75-82.
- Froozani, M. D., Permezhadeh, K., Motlagh, A. R. & Golestan, B. (1999). Effect of breastfeeding education on the feeding pattern and health of infants in their first 4 month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B World Health Organ*, 77(5), 381-5.
- Guldan, G. S., Zhang, M., Zeng, G., Hong, J. & Yang Y. (1995). Breastfeeding practices in Chengdu, Sichuan, China. *J Human Lact*, 11(1), 11-15.
- Kasemsarn, P., Ngarmpiyasakul, C., Phongpanich, S. & Pulkasisri, N. (1995). Baby-friendly hospital: how to sustain? *J Med Assoc Thai*, 78(7), 362-368.
- Loras-Duclaux, I. (2000). Practical advice for women who want to breast feed. *Arch Pediatr*, 7(5), 541-548.
- Marchand, L. & Morrow, M. H. (1994). Infant feeding practices: understan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am Med*, 26(5), 319-24.
- Osgood, C. E., Suj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slislo, A. & Kaminski, K. (2000). Rooming-in: a new standard in obstetrics and neonatology. *Ginekol Pol*, 71(4), 202-207.
- Perez-Escamilla, R., Sefura-Millan, S., Politt, E. & Dewey, K. G. (1993). Determinants of lactation performance across time in an urban population from Mexico. *Soc Sci Med*, 37(8), 1069-1078.
- Preski, S. & Walker, L. O. (1997). Contributions of maternal identity and lifestyle to young children's adjustment. *Res Nurs Health*, 20(2), 107-117.
- Reeder, S. J., Martin, L. L. & Koniak, D. (1992). *Maternity nursing(16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Reid, T. (2000) Maternal identity in preterm birth. *J Child Health Care*, 4(1), 23-29.

Walker, L. O. & Montgomery, E. (1994). Maternal identity and role attainment: long term relations to children's development. *Nurs Res*, 43(2), 105-110.

Watters, N. E. & Kristiansen, C. M. (1995). Two evaluations of combined mother-infant versus separate postnatal nursing care. *Res Nurs Health*, 18, 17-26.

Worthington-Roberts, B. S. & William, S. R. (1989).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St. Louis: Mosby.

- Abstract -

Effects of Rooming-in on Continuation of Breastfeeding and Maternal Identity

Shin, Gye Young · Kim, Oh Jin**
Park, Ju Hyueon*** · Lee Jueng Rim*****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continued breast feeding and maternal identity between rooming-in and not rooming-in groups of mothers in post partum care.

Method: The subjects were se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with 95 women in childbirth complet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on the 2nd day after delivery by questionnaire, and after the 4th and 8th weeks by telephone interview. Measure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breast feeding 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 maternal identity scale revised by Koh(1996).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and the Chi-test and t-test were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n breast feeding and maternal identity.

Result: Continued breast feeding up to 4 weeks after deliver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rooming-in and not rooming-in group, but beyond 8 weeks of delivery,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rooming-in group($p < .01$). Maternal ident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rooming-in group than in not rooming-in group($p < .01$).

Conclusion: Mothers preferred rooming-in system because it helped breast feeding and baby care. Rooming-in system provides self confidence in taking care of baby, knowledge about breast feeding and stimulates early phase lactation. We recommend rooming-in system in hospitals to promote breast feeding and maternal identity. Nurses are encouraged to discuss prenatal breast feeding before delivery and rooming-in care should be planned individually for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and formation of maternal identity.

Key words : Rooming-in care, Breastfeeding, Maternal identity

* Part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 R.N., Department of Nursing, Uijeongbu St. Mary's Hospital.
 *** R.N., Department of Nursing, Samsung Medical Center
 **** RN-BSN program,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